

세계 곡물수급과 가격변동 동향



최희철 과장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가금과

최근 국제 곡물가격이 심상치 않다. 밀, 옥수수, 대두 등 국제가격이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고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이렇게 국제 곡물가격이 급등하는 것은 미국 등 곡물 주생산지역의 이상기후와 곡물의 투기적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2012년도에 미국, 러시아, 우크라이나 등 세계 곡물의 주요 생산지에서 이상기후로 인하여 작황이 부진하여 생산량이 크게 감소했고 이에 따라 이들 나라의 곡물 수출량도 감소했다. 이에 따라 투기자금이 곡물시장으로 반입되어 곡물가격이 급격히 올라가고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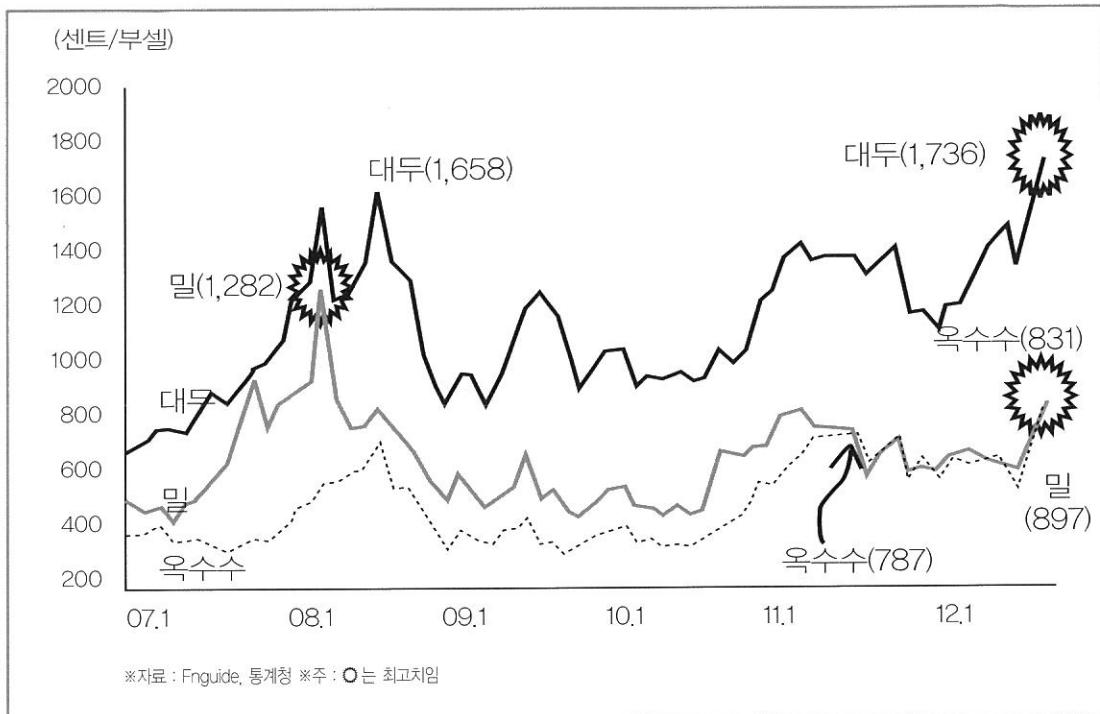
이와 함께 식용, 사료용, 바이오 연료용 수요가 꾸준하게 증가하면서 국제곡물가격이 상승하는 또 하나의 원인이 되고 있다.

특히 밀, 옥수수, 대두 등의 가격이 급등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밀가루, 전분, 사료 등의 가격이 인상되고 있으며 이들 곡물을 이용하여 제조하는 식용유, 두부, 국수, 빵, 곡분과자, 장류, 우유 등 가공품도 가격이 오를 조짐을 보이고 있다.

1. 국제 곡물가격 급등의 원인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2년도에 밀과 대두의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으며 이는 국내 물가에도 압박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제곡물가격 인상의 가장 큰 원인은 곡물 생산지역의 이상기후 때문이다. 특히 세계 곡물 수출의 35~70%를 담당하는 미국은 2012



<그림 1> 국제 곡물가격 추이

년 5월 이후 극심한 가뭄으로 곡물의 생육상황이 좋지 않았다. 이로 인해 5%에 불과했던 불량률도 50%로 증가하여 생산량이 많이 떨어졌다.

이에 따라 투기성 자금이 곡물시장에 유입되어 시세차익을 노린 매입으로 옥수수, 밀의 사재기가 증가했다.

또한 인구증가로 인하여 곡물의 소비가 증가하고 있는 것도 하나의 이유로 들 수 있다. 1980년도에 45억명이었던 인구는 2000년에 61억명으로 늘어났고 2030년도에는 83억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서

곡물소비량도 1980년대에 7억8백만톤에서 2000년에는 10억톤으로 늘어났고 2030년도에는 13억톤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소득수준이 증가하면서 육류의 소비도 증가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가축사육을 위해서 사료용 곡물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인구비중이 높은 개발도상국의 1인당 육류 소비량이 1980년대에는 13.7kg이었으나 2000년도에 26.7kg으로 늘어났고 2030년도에는 38kg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서 곡물의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되는 것이다.

국제유가 상승에 따라 바이오 연료용 곡물

수요가 증가하는 것도 큰 원인 중의 하나이다. 세계적으로 2010년에는 1,483만톤이 바이오에탄올을 생산하기 위하여 곡물이 사용되었으나 2013년에는 1,754만톤이 사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이 이상기후 등으로 생산량은 감소한 반면 인구의 증가로 식량소비가 늘어났을 뿐만 아니라 육류소비 증가에 따른 사료용 곡류 소비량의 증가, 바이오연료용 곡물 수요의 증가 등으로 수급불균형에 따른 가격의 인상이 지속되고 있다.

2. 우리나라의 곡물 수입현황

우리나라의 곡물 대외의존도는 매우 낮은 편이며 22.6%로 OECD국가 중 최고 낮다. 특히 밀과 옥수수, 대두의 자급률은 1.1%,



<그림 2> 국가별 곡물 수입현황

0.8%, 6.4%로 거의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수입대상 국가도 편중현상도 심한 편인데 옥수수는 미국에서 수입하는 물량이 78%로 미국의 이상기후에 따른 생산량 감소가 우리나라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우리나라의 곡류 수입 총량은 1,437만톤 정도이며, 이중 밀 432만톤, 옥수수 851만톤, 대두 124만톤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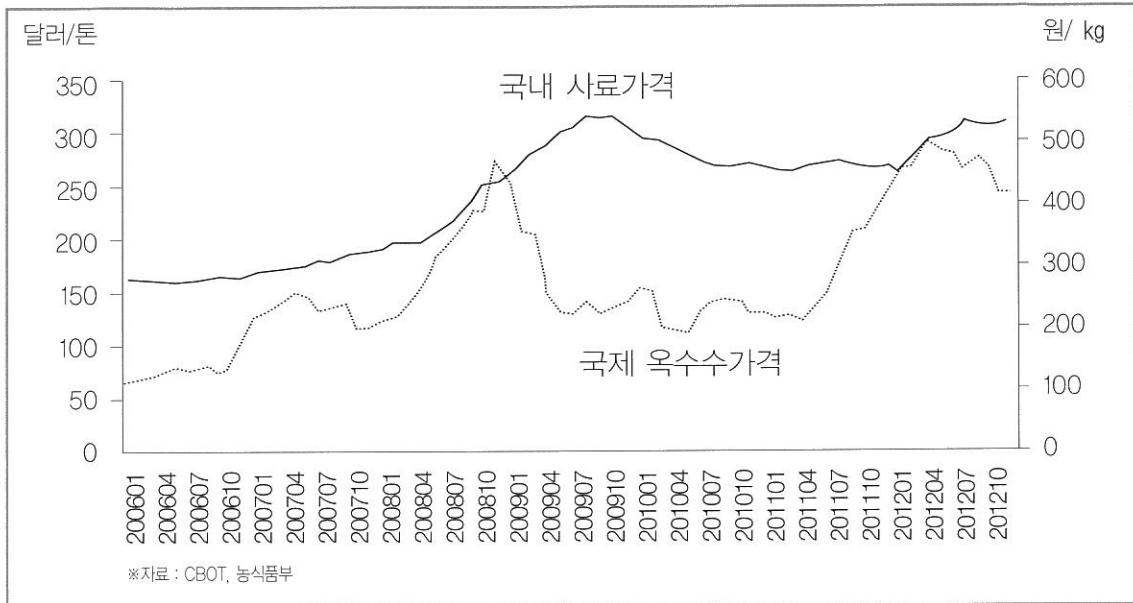
3. 국내 사료가격 동향

국제 곡물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국내 사료가격도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 특히 사료 원료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옥수수 가격이 2006년도에는 톤당 90달러 정도에 불과했으나 2012년 10월 현재 316달러로 3배 이상 상승하면서 사료가격도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다.

생산비 중 사료비의 비중은 젖소 61.5%, 육계 60.2%, 산란계 57.5%, 돼지 50.0%, 한우 40.2%이며, 특히 생산비 중 사료비 비중이 높은 젖소, 산란계, 육계 등에서 큰 경영 압박을 받고 있으며 소규모 영세농가의 경영악화로 이어지고 있다.

4. 국제 곡물가격 인상에 따른 대응방안

국제 곡물가격의 인상에 따라 국내 사료용 곡물의 안정적 공급이 매우 중요하며 생산비를



<그림 3> 옥수수 선물가격과 사료가격 동향

줄이고 안정적으로 저렴한 가격의 축산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특히 해외로부터 사료원료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사료의 유통비용을 낮추는 방안과 대체 사료자원과 부존 사료자원을 활용하는 방법이 모색되어야 한다. 해외로부터 안정적으로 사료원료를 공급받기 위하여 수입사료 원료와 수입 국가를 다변화하고 해외곡물기지 등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일본과 같이 국제곡물 유통회사를 육성하는 것도 필요하다.

옥수수 등을 대체할 수 있는 대체 사료원료를 개발하고 사료원료도 다양화하여 옥수수를 일부라도 대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답리작 후의 유휴농지를 활용하여 이탈라안라이그라스나 보리 등 조사료를 재배하여 푸른 들녘을 가꾸고 생산비도 절감하고 가축분뇨도 친환경적으로 활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식품 가공부산물이나 농산부산물 등 부존 사료자원을 원활하게 사료원료로 사용하는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참고자료

1. 국제 곡물가격 상승과 국내물가
(현대경제연구원, 2012.9.26)
2. 사료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위한 정책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3.3.5)